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만해 정신’ 되살아난다

스님으로서 구도의 길을 걸었으며, 시인으로서 님을 노래했고, 독립운동가로서 육신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던 만해스님. 그 만해스님의 사상과 문학혼이 다시 살아난다.

일제시대 만해스님이 창간한 불교교양지 <유심(惟心)>이 종간된 지 83년 만인 오는 3월 복간되는 것이다.

일제시대 불교청년을 위한 계몽지로 문학과 불교의 만남을 시도했던 <유심>은 1918년 9월 1일 창간이후 같은 해 12월 제3호를 끝으로 종간됐다.

끊어진 맥을 되이으며 오는 3월 1일 복간되는 <유심(惟心, 계간)>은 창간 당시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취지만 불교교양지가 아닌 시조, 소설, 평론 등을 주로 담은 순수문예지를 지향한다.

이번 복간호에는 파당 21세기 문학을 전망한다'에서 통일문학과 문단권력지향 문제 등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또 신경림 시인과 이기철 시인의 신작 시편과 소설가 이문규씨의 '문단 뒷이야기', 김규영 열무옹 씨 등이 전하는 '만해와 특별한 만남' 등 다양한 읽을 거리를 통해 만해정신을 이 시대가 이어받아야 할 이유를 밝히게 된다.

<유심>의 복간은 신홍사 회

주요한스님, 신경림 시인, 박시교 시조시인, 이지엽교수(광주여대 명예영양학과)등 지난 여름 백담사에서 열린 만해추진에 모인 문인들이 뜻을 모은 끝에 이뤄졌다. 오현스님이 고문을,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사무총장 조동영변호사가 발행인을, 박시교씨가 주간을 맡았다.

<유심>은 만해스님과 관련된 기획물을 꾸준히 선보일 것과 동시에 기존 문단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지면을 할애해 창간지의 의미를 더하는 한편 만해신인상을 제정해 시, 조, 소설, 평론 분야의 신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매년 여름 열리는 백담사 만해추진과도 연계하는 등 문학계를 통해 만해스님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유심>은 불교교양지가 아닌 순수 문예지의 성격으로 모습을 바꾸기는 하지만, 문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불교의 정신을 문학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확대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유심(惟心) 즉 '오직 마음 뿐'이라는 제호의 뜻 그대로 현상에 미혹됨 없이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며 사는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잡지로 오래 이어지길 바란다.

이 은 자 <취재2부 기자>



◇만해스님



◇유심(惟心)

‘NGO 명상학교’ 연다

재가연대 4월부터 시민운동가 대상 월 1회 강좌·실습 여름 명상캠프도

수없이 생기는 이슈,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회의와 처리해야 할 산적한 일들.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에도 불구하고, NGO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들은 바쁜 일상에 빠져 몸과 마음을 상하기 쉽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나'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타인과 사회를 오랫동안 잘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세)는 4월부터 전국의 NGO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활동가를 위한 명상학교' 및 하계 명상캠프를 개설 운영한다. 자신보다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운동가들을 불교적인 정서로 안내하는 명상학교는 날로 커져만 가는 NGO의 위상을 감안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깨달음의 사회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주 화요일 서울 선학원중앙선원(예정)에서 열리는 명상학교는 월 1회 강좌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동사법회주행 용타스님, 조필스님, 위빠사나 수행자 김영권 법사, 김홍경 한의사, 김현 중앙침학자 등 전문 강사진이 다양한 수행법과 동양철학적 세계관으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시민운동가들(정원 40명)의 마음과 몸에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7월에 열리는 여름 명상 캠프는 몸 돌보기, 마음 돌보기, 인간과의 연대 증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재가연대 정용기 시민사회국장은 "바쁜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참'나를 찾는 사람, 목적과 당위만 앞세워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는 활동, 따뜻한 심성으로 사람과 사회를 돌보는 활동가들을 만드는 것이 명상학교의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삶의 길을 바꾸는 건강한 시민운동과 대안문화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가연대는 명상학교의 효율적인 진행과 성과를 위해 시민운동가들의 수행과 명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민운동정보센터(www.kngo.net)와 함께 24일까지 진행한다. 02-725-6231 김재경 기자 (gkjm@buddhapia.com)



도 하나의 시작을 위한 작은 마음인 졸업식. 지난 16일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졸업생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간직한 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정각원에서 졸업법회를 봉행한 불교학부 스님들의 참박웃음처럼 불교의 내일도 밝게 피어나길 기원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남북종교인 내달 27일 토론회

베이징서... '공동선언 이행' 주제로

남과 북의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종교인들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불교 개신교 등 7개 종교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조창규 성균관장)는 15일 열린 16차 중기총회에서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종교인들의 역할' 주제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는 3월 27일부터 30일 또는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며, 토론회와 함께 △6·15 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한 민족통일 대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실무 협의의 스

문화재 관리 특감

감사원, 4월부터

문화재의 보존 및 정비 실태, 사적·유적지에 대한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15일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부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4월부터 4개월간 문화·관광·환경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특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적인 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었으나 종합적인 특감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를 '환경 문화 감사의 원년'으로 정한 감사원은 문화재 분야 등의 특감을 위해 지난해 말 '환경 문화감사단'을 설치한 데 이어 문화·환경전문가 18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종남 감사원장은 16일 자문위원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문화유산의 현황조차 완벽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발굴과 지정 보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실효성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장·군·족·비

- ◇인간 계승 지도 완성. 인간의 유전자 수 초파리의 2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인간과 초파리의 차이는? (9면)
- ◇'깨달음'을 주제로 한 무차 토론회 '화엄공장' 열리다. 토론자들의 이구동성: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떠난 깨달음은 공허하다. (9면)
- ◇자유! 문수의 '지혜'로 찾을 것인가 보현의 '실현'으로 찾을 것인가? 그리스인 조르바는 보현의 길에서 자유를 보았다. (14면)
- ◇인터넷 불교 교양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시간 없고, 돈 없고, 책 없어서 공부 못한 불자들이 모여라. (23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조계종, 행정부·환경부·문화부에 공문

조계종 총무원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 명의로 14일 행정자치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조계종은 "한라산의 자연경관의 보존과 동 식물의 보호를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정성운 기자

一心佛院
 각종 불사/불교 용품 일괄
 대불, 小佛, 불단, 탕피, 단장, 단집
 02-725-2030 / 725-2040

새천년의 발원

손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연등은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각 사찰이름 안에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 (빨강)
- (핑크)
- (노랑)
- (연두)
-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 (빨강)
- (노랑)
- (오색)
- (차걸이등)

팔모조림등

- (빨강)
- (노랑)
- (주련등 빨강)
- (주련등 노랑)
- (육각등)

만월등

- (핑크)
- (노랑)
- (오색)
- (만월장등)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